

여름의 치열한 열기가 찾아들고 슬슬 쌀쌀한 바람이 푸른빛을 잃기 시작하는 나뭇잎들을 흐트러뜨리며 하나둘씩 떨어뜨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다음 수업까지는 삼십 분이 남아 있었고 수업하는 건물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른 데 들르기도 바로 가서 기다리기도 애매한 시간이라, 라피스는 사람 지나다니지 않는 뒷골목 한구석 콘크리트 건물에 기대고 서 담뱃갑을 재킷 주머니에서 꺼내 열었다. 이내 능숙하게 손 안에 감기는 하얀 막대는 보기에 어색함이 없었다.

라이터를 찾으려 한쪽 손으로 바지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남은 손을 이용해 담배를 입에 물자 아직 불도 붙이지 않았건만 파블로프의 개라도 된 듯 벌써부터 쓴 맛이 느껴져 왔다. 별로 개의치 않고선 라이터를 담배 끄트머리에 가져다 대고선 빨간색 빛이 점등함과 동시에 혹 숨을 들이쉬었다. 동시에 독한 향이 제대로 입 안에 그득 퍼지며 목구멍을 간지럽혔다. 한동안 맛을 음미하다가 담배를 비딱하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쥐고선 한숨이라도 내쉬듯 후, 하고 숨을 내뿔자 새하얀 연기가 공중에 한동안 머무르다 이내 허공으로 바스라졌다. 라피스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기침 한 번도 없이 하늘을, 가끔 핸드폰을 꺼내 쳐다보며 계속해서 연기를 빨아냈다 뱉어내는 품은 남이 보기에야 딱 골초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건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다. 고삼 때만 해도 무단조퇴 몇 번에 복장불량은 일상다반사였지만 술담배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럭저럭 열심히 공부해 그럭저럭 잘 나온 성적으로 어중간하게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술은 몇 번 훌쩍였지만 담배와는 통 인연이 없었던 라피스가 일주일에 족히 한 갑은 해치우게 된 것은 첫 여친을 만나고부터였다. 첫 연애는 서툴렀고 불안했고 무엇보다 전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몇 개월간의 기나긴 자기혐오와 의심 끝에 해변 앞에서 마침표를 찍은 연애는 그러나 쉬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을 남겼다. 예컨대 지금처럼 도통 채워넣어지지 않는 가슴 속 공허함을 뭔가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것 대신 질고 짙은 일회성 독극물질로 채워버리는 습관이라던가.

끊어야 하는데, 구름의 흔적인지 제 담배연기인지 모를 푸른색 하늘 가운데 박힌 하얀색 기체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라피스는 수백 번은 생각한 다짐을 다시 머릿속에 펼쳐 놓았다. 그러나 제 앞에서 금방금방 자취를 감추는 연기만큼이나 결심은 빠르게, 쉽게 잊혀졌다. 이제는 째깍이 시간만 난다 하면 구석진 곳에서 한두개비 피우는 일이 습관을 넘어 일상의 하나로 자리잡았기도 했고, 또-

턱, 담배를 다시 입 쪽으로 가져가려던 손목이 굳게 잡혔다. 갑작스런 충격에 담배가 손 안에서 균형을 잃고 잠시 휘청이던 것을 그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선 엄지손가락으로 지탱했다. 제 짙은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도드라지는 하얀 손의 가히 부자연스러울 만큼 가지런히 정돈된 손톱을 보지 않고도 라피스는 방해자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페리도트."

부러 평소 말투보다 몇 배 건조한 톤을 사용하며 라피스는 딱히 정해진 곳 없이 하늘 어딘가를 향하고 있던 초점을 제 손목을 잡은 장본인에게로 돌렸다.

"내가 그만 피우라고 말했잖아."

페리도트의 단호(하려고 애쓴 듯)한 목소리를 흘려넘기며 라피스는 자기 어깨보다도 낮게 위치한 동그란 얼굴을 무심히 쳐다보았다. 또 밤을 연속으로 잤는지(요즈음이 과제가 밀려들어 올 시기이긴 했다)입술은 말라붙었고 눈가는 켜졌지만 라피스의 서늘한 파란색 눈동자를 맞받아치는 그의 초록색 눈동자 속 선연한 눈빛은 두꺼운 안경알을 넘어 눈 밑의 선명한 다크서클까지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쪼만한 게 눈빛하고는. 누가 봐도 반대인 상황인데 꼭 제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일단 부라리고 앉았다.

"건강에 안 좋다고. 저번에 보니까 최소 하루에 한 개비는 피우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귀찮다는 듯 손목을 책 뿌리치며 단 한 음절로 잔소리를 단번에 끊어 버렸다. 명백히 당황한 빛을 띄는 표정에 대고 말을 이었다.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야-"

너무 빠르게 외친 말은 그러나 역시 급하게 끊겨 버렸다. 채 말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듯 벌린 그대로 굳어버린 입과 흔들리는 동공은 할 말을 찾지 못했거나 찾지 못한 척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라피스는 이미 페리도트가 어느 쪽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몇 번 더 말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다 이내 굳게 입을 다무는 것을 감상하며 조금 미소지었다. 풀빛을 띄는 눈동자에 왜 아까까지의 단호함 대신 절박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는지, 라피스는 알고 있었다.

"친구니까?"

나른히 웃으며 대신 말을 끝맺자 페리도트의 어깨가 조금 움찔했다. 사실 문장 자체는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도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사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법이지, 라피스는 생각하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웬지 아까보다 더욱 씹쓸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라피스는 입술을 깨물며 마주쳤던 시선을 제 목덜미께로 내린 페리도트를 바라봤다. 여전히 억누르지 못한 욕망이, 차마 말하지 못할 감정이 단단한 녹색 눈동자 안에서 넘실대고 있었다. 바보같은 주량 내기만 아니었어도 평생 둘은 평범한 우정 이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육신거리는 흥통의 이유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고통을 끌어안으며 밤을 지새우기를 반복했겠지. 하지만 둘은 지나치게 취했고, 페리도트는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나 말을 신중히 골라 하는 편은 아니었으며 라피스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상태였다. 라피스는 그날 페리도트가 딸기맛이 아니라 체리맛 립밤을 바른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다음날 둘 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척 했고, 심지어 라피스는 그런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처럼 굴어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로 둘의 관계는 천천히,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일방적으로 변해갔다. 큰 이유는 라피스에게 있었다. 라피스는 그날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면서도, 꼭 페리도트가 자기에게 가지는 감정이 뭔지 안다는 식의 암시를 두고는, 딱 우리의 관계가 우정 이상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여지 정도만 줬다. 두 발짝 다가와놓고는 상대가 한 걸음 내딛으려 하면 금세 세 보 뒤로 거리를 두는 식이었다.

라피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 라피스 역시 페리를 향한 제 감정이 단순한 우정만이 아님을 감지하고는 있었지만 전여친과의 선례는 그에게 너무 큰 흉터를 아로새기고 갔다. 감정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라피스에게 결핍을 안겼고 라피스는 이번에는야말로 그 공허를 채우겠다는 생각이었다. 우정으로 남기엔 아쉬웠고 사랑으로 발전하기엔 너무 두려워서, 그러한 제비갑함은 페리의 저에 대한 감정을 몇 번이고 확인받는 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해?

속으로 몇 번은 했던 질문을 곱씹으며 페리도트를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남이 보기엔 꼭 키스라도 하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페리도트가 당황해 몸을 경직하는 게 보였다. 페리도트의 엄청나게 두꺼운 안경만 없었다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거의 코가 맞닿을 듯한 거리였다. 페리도트의 콤플렉스라던 열은 주근깨까지 하나하나 보일 지경이었다. 라벤더향 샴푸가 코 끝을 스치는 가운데 온기 있는 숨결이 뺨을 간지럽혔다.

"라피스? 뭐하는 거-"

짓궂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선 후욱, 아까 머금었던 연기를 가볍게 내뿜었다. 흰 연기가 뭉게 뭉게 피어올라 잠시 동안 페리도트의 얼굴을 흐트러뜨렸다. 제 나름대로는 약하게 분 것이었는데 페리도트는 단번에 경악하며 뒤로 폴쩍 뛰어 도망가고는 몇 번이고 쿵쿵대며 라피스가 나른하게 웃으며 남은 담배연기를 다른 쪽으로 뱉어내는 동안 내내 팔을 휘휘 저어 댔다.

"야!!! 이게 진짜!"

"미안미안, 그치만 네 표정이 너무 심각하길래 장난 좀 쳐볼까 했지."

애초에 표정을 그렇게 짓게 한 장본인은 태연히 말했다. 너 진짜, 그렇게 더럽게 말 안들을 거면 난 간다! 단단히 짜증났는지 페리도트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생각난 듯 뒤를 획 돌아보고선,

"너 진짜, 그거 좀 끊어라, 건강에 안 좋다고!"

끝내 한소리 했다. 이내 부러 울리는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페리의 단풍잎 같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라피스는 말없이 담배 한 모금을 더 머금었다. 정말, 끊어야 하는데,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채 이어지지 못한 상념은 자욱한 담배 연기에 이내 묻혀 버렸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